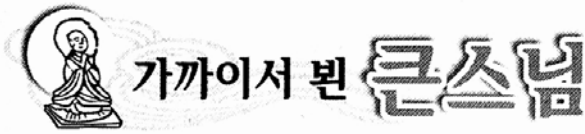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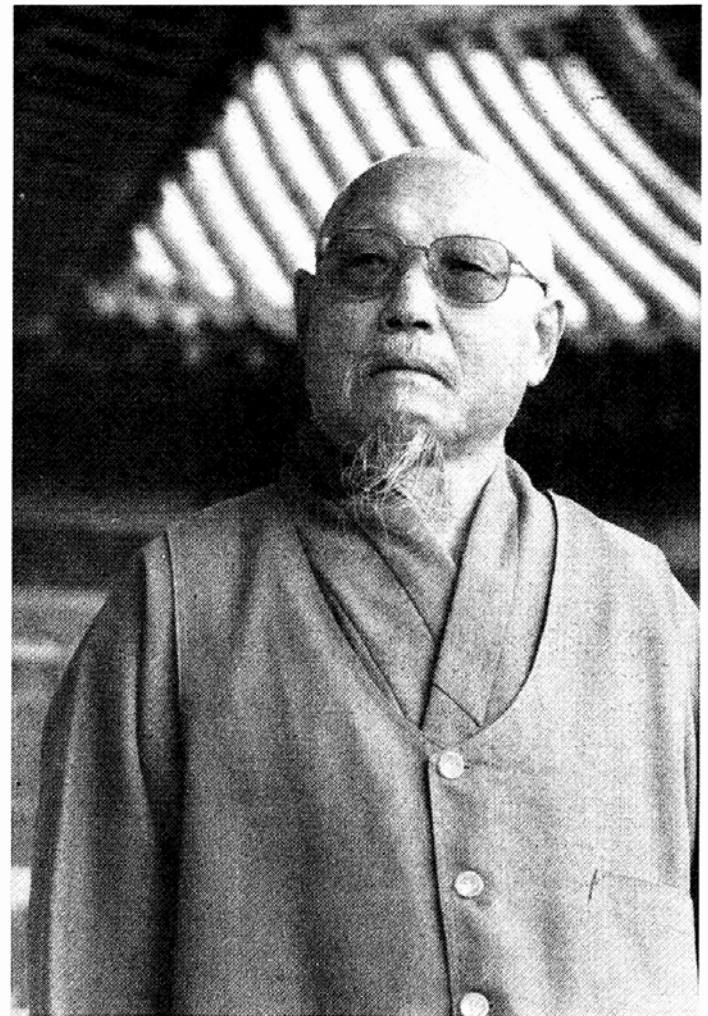


인허스님

오대산 월정사 회주



“지금 하는 일 가벼이 말라”



○86세의 고령임에도 조석예절, 독경, 참선을 쉬지 않는 인허스님은 언제나 경전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으로 법문을 대신한다.

고 강조했다. 또 자리를 아는 사람은 눈이 멀어도 천리 만리를 본다는 거여. 소소한 것이라도 근본을 모르면 필요 없다고 말하곤 했지.”

2년 뒤 탄허 스님의 뒤를 이어 출가했다는 인허스님. 스님은 스무살 초발심 당시와 청년 탄허스님을 회상하는 듯 잠시 말이 없으시다. 어렵게 말귀가 다소 어두우셔서 말문을 여셨다.

“당시 절에는 전부 대처승들 뿐이었어. 선방 다니는 수좌들 빼고는 말이야. 일본인들이 경술년(1910년) 합방(일제강점) 때 비구승들을 대처승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이때 ‘주지’라는 말도 생겼어. 왜놈들이 한국 불교를 망친거야. 이승만 정권 때 대처승 7,000명을 수좌 300명이 목숨을 걸고 몰아냈어. 한국 불교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어. 폭력이 난무하고 온갖 비불교적인 일이 판을 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일제시대의 폐해로 볼 수 있겠어.”

“법문 청하러 왔습니다”

“경전대로 실천하면

그대로그 법문이야”

오늘날 한국불교의 고질적인 병폐인 ‘폭력’의 뿌리를 설명하는 노스님의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이 ‘과보’임을 다시금 깨닫는다.

“스님, 가까이서 모신 한암스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성격이 급했지만, 겸손하셨지.”

“스님께선 한암스님으로부터 ‘이 뭘?’ 화두를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한암스님은 평소 어떤 가르침을 강조하셨나요?”

“묵언(默言)인데 무슨 말을 해. 상원사 선방(청량선원)에선 오로지 묵언이었어. 밥 먹을 때만 입을 벌려먹곤 했지. 처음에 방법만 알려주면 그만이었어. 경을 설할 때는 ‘불급불완(不急不緩)’을 강조하셨어.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게 꾸준히 생각을 끊지 않고 정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지.”

한창 공부하던 시절의 기억이 저절로 떠오르는지 인허스님은 상원사 선방에서 공

“국내의 명산 중에서도 여기가 가장 좋은 곳이야. 불법이 길이 변할 곳이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 소재한 오대산(五臺山). 일명 인허스님이 <삼국유사>에서 기록한 것처럼 신불(神佛)이 깃들여 있는 한민족의 성스러운 영지인 오대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월정사가 마음의 심터를 마련해 준다.

<삼국유사>에 나타난 창건 유래에는,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온 643년(신라 선덕여왕 12)에 오대산이 문수보살(文殊菩薩)이 머무는 성지라고 생각하여 지금의 절터에 초암(草庵)을 짓고 머물면서 문수보살의 진신(眞身)을 친견하고자 하었다고 한다.

문수보살의 상주처인 성스러운 땅으로 신앙되고 있는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일명 약왕보살상(藥王菩薩像)이라고도 하는 보물 제139호 석조 보살좌상(菩薩坐像)이 대웅전 앞에 살아있는 듯 좌정한(현재는 유적발굴로 이전) 이 곳에는 근대의 고승인 한암 대선사(조계종 초대종정)의 수행가풍이 오롯이 전해내려온다.

역수비가 내려 강원도 횡성지역에 물난리가 난 7월 23일, 한암스님의 제자인 월정사 회주 인허스님을 친견했다.

“스님, 건강하시지요. 스님께 법문을 청하러 왔습니다.”

“법문은 무슨 법문. 난 멍멍구리야. 아는 게 없어. 그만 가봐.”

“스님, 제가 근기가 낫지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다 구입 짓는거여...”

86세의 고령이신 인허스님은 점심공양을 드신 후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셨다. 말씀을 아끼시는 스님에게서 오랜 묵언정진은 물론 겸양의 기풍이 묻어나온다.

“스님, 1983년 입적하신 탄허 스님은 스님의 속가 형님이자 스승이신 한암스님에게서 같이 공부한 사형도 되시는데 탄허스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계축생인 탄허스님은 5형제 중에 둘째였고, 나는 세 살 아래였어. 14살 때까지 4서와 서경을 깨우칠 정도로 한문에 달통했지. 17세에 장가를 드셨는데, 그후 3년간 한암스님과 도(道)를 묻는 서신왕래를 한 후 22세에 출가를 했어. 그녀는 좀 특별한 데가 있어서 항상 근본자리를 알아야 한다

오도승으로 보는 한국禪

무산스님

나옹 왕사의 ‘無聞’

나옹 왕사의 이름은 원해(元慧), 법명은 해근(慧勤), 법호는 나옹(懶翁), 속성은 아(牙)씨, 평생 주석하신 당(堂)은 강월헌(江月軒)이다.

왕사는 나이 20세에 친구의 죽음을 보고 무상한 마음을 가늘 길 잃어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른들에게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하고 묻고 다녔다.

하지만 모두들 모른다고 대답했다. 마음의 답답함을 풀 길이 없자 공덕산 묘적암에 주석하고 계신 요연선사(了然禪師)에게 출가했다.

요연 선사는 물었다. “무엇 때문에 중이 되려 하느냐?” 이에 왕사는 “삼계(三界)를 뛰어넘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고 말하자 요연 선사는 출가를 허락했다. 그 뒤 왕사는 운수남자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25세 때 회암사로 들어가 옹맹정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 스님 석옹화상(石翁和尙)이 승당에 내려와 선상을 지면서 “대중은 이 소리를 듣는가”라고 크게 소리를 쳤다. 아무도 이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왕사는 홀연히 방에서 일어나 대답하였다. “선불장 안에 앉아 정신 차리고 자세히 보라(禪場中坐 權權着眼看). 보고 듣는 것이 다른 물건이 아니요 원래 그것은 옛 주인이다(見 非他物 元是舊主人).”

눈과 귀는 원래 자취가 없거늘

누가 원만히 깨칠 것인가

옹(翁)이 승당에 내려와 선상을 지면서 “대중은 이 소리를 듣는가”라고 크게 소리를 쳤다. 아무도 이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왕사는 홀연히 방에서 일어나 대답하였다. “선불장 안에 앉아 정신 차리고 자세히 보라(禪場中坐 權權着眼看). 보고 듣는 것이 다른 물건이 아니요 원래 그것은 옛 주인이다(見 非他物 元是舊主人).”

옹맹정진 4년 왕사께서 29세 때 겨울, 눈이 쌓인 뜰을 거닐다가 때 이른 개화꽃(梅花)을 보고 대오(大悟)하셨다.

무문(無聞)

眼耳元來自沒(眼이원래자물종) 箇中誰得悟圓通(개중수득오원통) 空非相處森身轉(공비상처신전) 犬吠鷓鴣盡籟通(견페노명진활통) 눈과 귀는 원래 자취가 없거늘, 누가 가운데서 원만히 깨칠 것인가. 텅 비어 형상 없는 곳에서 몸을 굴리면, 개 짖음과 나귀 울음이 모두 도(道)를 깨침이네.

이후 왕사께서는 중국 연도(燕都)에 들어가 법원사(法源寺)에 주석하고 있

는 지공 선사(指空禪師)를 찾았다. 지공이 물었다.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누가 그대를 여기 오라하던가.” “고려에서 해근이 스스로 왔습니다.” 지공은 허락했다. 이후 왕사는 지공 문하에서 수참(修參)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공은 왕사에게 “하늘의 해와 땅의 조사를 모두 다 쳐부수어, 그 경지에 이르면 그것은 무엇인가?” 물었다. 왕사는 “안팎이 다 불다”면서 대각(大覺)을 이르게 되었다. 왕사의 입에서 금구(金口) : 부처님의 입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황금이나 금강에 비유한 말(金剛舌)이 흘러 나왔다.

대원(大願)

包塞虛空絕影形(포색허공절영형) 能舍萬像體常清(능함만상체상정) 目前眞景誰能量(목전진경수능량) 雲卷清秋月明(운권청천수월명) 허공을 꼭 싸안은 그 모습 뛰어나, 온갖 형상 머금지어도 맑은 항상 깨 곳이다.

눈앞의 참 경계(景御)를 누가 능히 헤아리니, 구름 걷힌 푸른 하늘에 가을 달은 밝아라.

이와 같이 왕사의 대기대용(大機大用)적 선(禪)은 회두(回頭) 전물(全物)하는 것이 아니라 회두를 통하여 성성(惺惺)해지므로 개오(開悟)됨을 말씀하였다.

또한 왕사께서는 수행 방법에 있어서 엄불도 매우 중요시하였다. 엄불을 미타일념으로 담연(懃然)적 청정심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삼야도를 벗어나는 정각의 지름길로 보았다. 아미타불의 서방정토를 별개로 인정하지 않고 선가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정토 자체를 마음에서 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왕사께서는 이론에 치중하여 관념적 성격이 강한 화엄의 법계연기사상(法界緣起思想)을 실천적 행동적으로 개혁(改革)성심(惺惺)적 개오(開悟)인 시심마(是甚摩) 선(禪)으로 발전시켰다.

왕사의 대기대용의 시심마 선은 오늘날에도 크게 활용되고 선원의 청풍이 되고 있다. 왕사께서는 회암사에서 고려 우왕 3년(1377)에 입적하였다.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범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기도!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크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여러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크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 / 값 3,500원

일타크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신도들이 직접 체험담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4×6판 / 값 5,000원



남국선원장 해국스님께서 알기 쉽고 재미있게 엮은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 값 5,000원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크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제,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크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풀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루어 가는 모범이 참회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실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이 책을 읽고,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속으로 들어가

는 물꼬를 띄어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X 6판 / 값 3,500원

- 〈구성〉 I 업장과 참회 II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III 절을 통한 참회 IV 참회염불 V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VI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영가천도를 위한 지침서 지장신앙·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 뿐 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대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축원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찬,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기도를 하게되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